

“특별교부금 사업 신중 기해야”

김승환 교육감, 추후 시도교육청 부담될 수 있어... 폐교활용 방안 검토도 주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특별교부금 목적사업을 다룰 때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개 한시사업이지만 그 후유증이 사업종료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력 고용이나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사업은 반드시 과장선에서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또 폐교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폐교 재산을 청소년 복합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교의 학과개편을 진행할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기간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면서 “당장에 특정 학과의 인기가 시들하고, 취업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해서 학과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은 계속 유지하게 필요하지 않나”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해당부서에 특성화고 학과전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최종 선정

군산대학교(총장 박병선)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019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초기창업 전(全) 단계를 지원한다.

군산대학교는 또한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인 군산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복합 운영할 위탁기관으로도 선정되는 등 창업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군산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지원과 예비창업자 전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년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향후 청년 취업·진로·창업 관련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센터 활성화사업을 군산시 청년 및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 선정과 관련해 박병선 총장은 “올해를 군산대학교 창업 원년의 해로 정하겠다”면서 “군산대학교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발휘하여 대학 및 군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창업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창업 성공 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세인고등학교가 독도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논산육군훈련소를 찾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당신의 관심이 독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익산 세인고, 독도교육주간 기념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익산 세인고등학교(교장 신형수)는 독도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운산경로당, 논산육군훈련소, 선사인랜드(드라마 미스터선사인 촬영지) 찾아 일주일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세인고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키우는 위해서 독도재난 홈페이지를 이용한 독도 퀴즈 게임, 포스트 만들기, 글짓기 마당, 봉사활동과 연

계한 독도환경보호 캠페인 등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했다.

또한 수업 시간을 활용한 독도 계기 교육 및 독도 아리랑 노래 부르기 등 일주일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육군훈련소, 선사인랜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도사랑 투어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학교를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고 있다.

특히 논산육군훈련소장(소장 구재

서)은 정병강군의 요람인 훈련소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훈련병들이 독도사랑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과정에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1층 공간에서 독도와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독도사랑 포스터 전시회 공간을 운영 중이다.

/익산=장민현 기자

익산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환자 18명 발생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2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 학교 학생 18명이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나타냈다.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은 가검물과 환경 검체를 채취하는

등 역학 조사에 나섰다. 현재 17명은 치료 중이며, 나머지 1명은 완치됐다.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고 개인 도시락과 식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검사 등을 통해 식중독 의심 증세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교사 24명 추가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에 따른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행계획을 2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c.go.kr)를 통해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1월 공립 유치원 교사를 39명 선발했으나, 금번 시험을 통해 공립 유치원 교사 24명

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원시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전북도 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제1차 시험은 6월 1일 하루동안, 제2차 시험은 7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인당도서관이 최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 제7회 전자정보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호원대 인당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인당도서관(관장 김미형)에서는 최근 도서관 2층 로비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학술활동에 도움을 주고 구독 전자자료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 제7회 전자정보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전자정보박람회 행사에서는 백화점상품권 30만원의 경품에 작업치료학과 4학년 차궁현 학생이 당첨되었으며 그 외 블루투스 이어폰, 여행용 캐리어, 블루투스스피커, 도서교환권, 에어프라이어, USB,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당첨 행운이 총 32명에게 주어졌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총 13개의 국내의 전자정보업체에서 참가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국내의 학술 DB, 어학 및 이력관리 등 인당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여러 전자정보서비스를 시연하고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미형 도서관장은 “대학의 심장인 도서관이 더 힘차게 박동하기를 원한다. 도서관은 대학의 대표적인 서비스기관이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여러 디지털 자료를 더 많은 이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이벤트로는 경품추첨이 병행되었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전자정보 경품응모권을 행사 참가자에게 배포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경품추첨은 행사 참가자들이 각 전자정보별 부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탬프를 획득하여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은성 기자

인당도서관에서는 이 외에도 다독상, 독서골든벨, 독후감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순위 경쟁보다는 축제의 장으로!

전북 동호인들, 총주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전국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다.

입장,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시·도 선수단 입장에서는 전북이 가장 첫 번째로 나선다. 이는 내년도 개최지가 전북이기 때문이다.

22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총주 등 충청북도 일원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다.

입장식에서는 전북의 멋과 맛을 적극 알리고, 2022년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 유치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축전은 전국체육대회 등 엘리트 대회가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회로 시·도간의 순위 경쟁보다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치러지는 대회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대축전이 열린다면 전북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이번 대회에 선수와 임직원 등 1,232명(선수단 1,088명·임직원 144명)이 검문과 게이트볼, 골프, 국악기공, 그라운드골프, 축구, 테니스 등 총 40개 종목에 출전한다.

한편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선수와 임원 등 전국에서 6만여명이 참여하며 내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회식은 26일 오후 5시 총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식전행사와 선수단

/정은성 기자